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컴퓨터 회사에서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환경단체에서 일하기도 했다. '내가 깨끗해질수록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다.' 《시사인》이 뽑은 '2014년 올해의 번역가'로 선정되었다. 옮긴 책으로 '테러리스트의 아들', '왜 인간의 조상이 침팬지인가', '여자로 태어나길 잘했어!', '직관펌프, 생각을 열다', '새의 감각', '수사학', '술에서 우주를 보다',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고양시도서관운영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도서관과 냉장고

**번역을 하다 보면 번역이 단순히 책 한 권을 한국어로 옮기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책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권의 책에는 수많은 책들의 자국이 남아 있다. 어떤 책은 개념을 남기고, 어떤 책은 이미지를 남기고, 어떤 책은 묘사를 남기고, 어떤 책은 문장을 남긴다. 또한 책은 다른 책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어떤 책은 뒷받침하고, 어떤 책은 반박하고, 어떤 책은 전유하고, 어떤 책은 전복한다. 사람이 인간으로 존재하듯 책은 책간(冊間)으로 존재한다.

**책 한 권을 번역하려면 수많은 책을 참고해야 한다.**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학계에서 쓰는 용어를 익히려면 그 분야의 교과서를 읽어야 하고,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그가 예전에 쓴 책들을 읽어야 하고, 그 책의 사상적 위치를 알려면 앞선 논의를 전개한 책과 찬성파·반대파의 책을 읽어야 한다. 본문에 인용된 책들도 찾아 읽어야 한다. 인용문의 번역을 참고하고 인용문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역하는 동안 도서관을 뺄질나게 드나들어야 한다.

**지금 번역 중인 책은 요트로 미국 오대호를 일주한 이야기다.** 이 책에는 호안(湖岸) 지형이 자주 언급되는데, 호안 지형을 설명한 책을 찾을 수 없어서 대신 해안 지형에 대한 책을 잔뜩 빌려 왔다. 지금 내 책상 위에는 「한국 서해안의 해안사구」, 「파도에 춤추는 모래알」, 「해안 시스템」, 「수문학」이 놓여 있다. 도서관에 간 김에 신작 도서 서가에서 「지금은 당연한 것들의 흑역사」와 「조선시대 산문 읽기」도 빌렸다. 도서관을 찾는 즐거움 중 하나는 생각지도 못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다. 상호 대차를 신청하고 도착 문자를 기다리는 즐거움은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즐거움 못지않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슴이 설렌다. 도서관에 가는 것은 업무의 연장이지만, 번역 작업과 무관한 책을 빌릴 때면 탄짓을 하는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렇게 접한 사상과 경험이 돌고 돌아 미래의 작업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단순히 '길티 플레저'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서관 서가의 책들은 단순히 한 줄로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름의 질서**

**와 관계가 있다.** 어떤 작가는 자식이 많아서 한 칸을 다 채우기도 하고 어떤 작가는 자식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기도 하다. 속적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가 하면 스승과 제자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도 있다. 그래서 도서관 자료실은 인물과 사상과 사물이 어우러진 '사회'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어간다.

**상호 대차 서비스가 실시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양시 관내 도서관을 순례했다.** 우리 동네 한빛도서관을 중심으로 마두도서관, 아람누리도서관, 대화도서관까지는 자전거로 방문했지만 내가 찾는 책이 그 밖의 도서관에 있으면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야 했다. 책을 반납할 때에도 일일이 해당 도서관을 찾아가야 하니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그래서 상호 대차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장서 187만 권을 갖춘 대형 도서관이 집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말이다. (얼마 전에는 전국 도서관의 책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저렴한 비용에 대출할 수 있는 책바다 서비스가 시작되어, 읽고 싶은 책은 반드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읽고 나서 서점에서 다시 산 책도 많다.** 이를테면 플라톤의 「국가」나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번역하는 책마다 인용이 되어 있어서 대출을 하다하다 결국 구입하고 말았다. 막상 책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대출해버렸으면 난감하기 때문이다. 나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중에서도 인문·사회 책을 주로 번역하기 때문에 서양 고전을 참고해야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중요한 고전들은 책상 옆 책꽂이에 꽂아두었다. 번역에 필요한 사전, 언어학 책, 번역 관련 책도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그 밖에 소설이나 과학, 정치, 심리 등의 분야는 그때그때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게 더 효율적이다. 가뜩이나 좁은 작업실에 책꽂이 다섯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니 도서관을 제2의 서재로 보아도 괜찮을 듯하다. 게다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가 도서관 갔다 오느라 잠깐 걷는 것도 혈액 순환과 기분 전환에 꽤 도움이 된다.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나 맥주를 작업실 냉장

고에 넣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결국 냉장고는 사지 않았다. 냉장고 소음이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아래층 슈퍼마켓의 대형 냉장고를 나의 전용 냉장고로 여기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서재와 냉장고를 가진 부자다.

**나는 도서관에 가면 골방 2층 자료실로 올라가 책을 반납하고 대출하고는 바로 돌아온다.** 그런데 요즘은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보다 열람실에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도서관의 독서실화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 학생이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쾌적한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환영일 테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왔다가 우연히 자료실에서 접어든 책 때문에 독서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서를 비치한 공간보다 열람실 공간이 더 넓은 것은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 아닐까 싶다. 열람실을 찾은 사람들은 책으로 가득한 공간에서 오히려 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참고서와 문제집 이외의 책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입시 공부인데, 이 입시 공부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순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일이 되면 기다리던 문자가 올 것이다.** 전중환의 「본성이 답이다」를 읽다가 책에 소개된 로버트 커즈번의 「왜 모든 사람은 (나만 빼고) 워선자인가」가 흥미로워 보여서 상호 대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우리 머릿속에 단일한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감정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궁금하다. 신작 도서 서가에는 또 어떤 신간이 들어와 있을까?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가 있으면 당장 빌리고 싶지만, 이미 누군가 대출했겠지? 내일 새로운 책을 만나면서 머릿속 사상의 지도가 좀 더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책장에서 인간의 길을 모색하며,

